

성인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의 지역 간 교육격차 및 e-Learning 인식 수준 연구

조재정*, 이수경**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교육 부문의 지역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e-Learning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실태와 활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대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체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서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교·강사의 전문성, 교육훈련 효과성 측면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집합교육이 e-Learning 보다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Learning의 주요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은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머지 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Analysis of e-Learning Gap among Regions in the Context of Adult Learning

Jaejeong, Cho*, Sookyoung,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recognition on the educational gap among regions in the filed of adult learning inclu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life long-learning. The study also tried to figure out the local government's recognition and infrastructure of e-Learning which is suggested as one of the solutions on the regional gap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quality.

This study took 12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funded and operated by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except Seoul and Kyong-Gi classified by the metropolitan areas in Korea.

As a result,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d perception on the difference and gap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quality among regions in the area of adult education. Especially, the perception was relatively more serious on quality than quantity.

Secondly, the result showed the large gap among regions on the area of opening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the quality of teachers and tutors, the effectiveness and outcomes of educational programs.

Thirdly, they perceived more serious educational gap on face-to-face classes rather than e-Learning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methodology.

It also reveal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d relatively better foundations on physical systems than other infrastructures and resources such as human-ware, culture-ware and soft-ware(contents, programs etc.).

It was recommended to consider these finding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future educational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of regional gap on education.

Keywords : Regional Gap of Education, Adult Learning, Life-long Learning, e-Lear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제일저자(First Author): 조재정
접수일:2010년 06월 16일, 수정일:2010년 06월 26일,
완료일:2010년 06월 28일

*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jj626303@hanmail.net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신저자)

1.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교육을 통해 가장 공정한 사회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격차의 실태와 해소방안을 제안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3], [1], [10]. 교육격차(教育格差)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있다[15].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격차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격차의 발생 요인이 사회 계층, 집단, 지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는 그 중 지역 변인에 따른 교육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교육격차는 학교 교육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며 학령기 이후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기회가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12]. 수도권 중심의 교육훈련기관 및 시설의 집중화와 편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거주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권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성인 인적자원의 개발·육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성인 학습 부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역교육격차 해소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지역적 차이에 의해 교육의 격차가 발생되거나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성인 교육훈련(직업교육훈련,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교육안 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능력개발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권리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8].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전

략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여 지역별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자 하였다[9].

최근에는 지역 교육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Learning을 연계한 정책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e-Learning을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경우가 많았다[3], [14]. e-Learning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동향과 e-Learning이 가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최근에는 e-Learning이 학교,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활성화되고 있어 다양한 학습자 층에게 보다 용이하게 e-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e-Learning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과 학습자 사이에 무한한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간극을 좁히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지역의 물리적·지리적 여건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e-Learning은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e-Learning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 및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e-Learning 보급,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Learning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육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 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정부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법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시책 수립, 집행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정부조직에서 성인교육 부문, 특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측면에서 지역 교육격차 및 e-Learning에 대한 인식 수준은 무엇이며 e-Learning의 구축 및 활용 수준은 어떠한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 교육훈련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인식과 본 연구에서 교육격차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e-Learning 관련 인프라·운영 현황 및 인식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 교육격차의 개념

최근의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의 개념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해영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교육격차로 정의하고 있다[15]. 류방란, 김성식도 교육여건, 교육기회, 교육과정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격차를 분석하였으며 그 밖의 연구에서도 교육격차를 투입요건으로서 기회균등의 격차, 교육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상의 격차, 교육결과로 얻어지는 교육효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10].

이러한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 정립은 교육평등에 대한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교육평등이 ‘기회’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17]. 즉, 성별, 신분, 계층의 차이 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허용, 취학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다음 단계는 학교교육의 조건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여 기회 평등의 여부를 넘어 실제적인 교육과정 상의 차이를 고려하게 되었다[16]. 이것은 교사의 질, 학교시설 및 제반 교육조건상의 격차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교육결과의 평등이다. 즉,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2].

이와 같은 교육평등에 대한 변화 양상과 맞물려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기회 → 과정 → 결과 격차를 포괄하는 형태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에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공된 교육기회로 인해 실제

교육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에 있어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지역 교육격차를 논할 때 단순한 교육 양적 기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교육 격차라는 개념을 접근하였다.

2.2. 지역 교육격차의 특성

지역 교육격차는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지역’에 두고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조건,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있어서 양적,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교육격차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다[6]. 계층 간 교육격차에 비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비교적 근래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과거 자연적, 물리적 구분 단위로 이해되었던 지역이 이제 사회구조적 함의를 내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하며 특정 계급에 의해 지배되고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사회적 공간을 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부와 빈곤의 지리적 편중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거주지는 단순히 개인이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 편의시설, 사회서비스시설과 같은 사회적 회소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학교당 투자되는 경비의 차이가 연간 수 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10]. 이것은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역 우수 인력의 유출현상으로 경제력 있는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지역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단순한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성적차이를 넘어서서 시골 지역 우수 학생인구의 유출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1].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경제자본을 가진 집단은 비교우위를 지닌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이주 여력이 없는 집단이 잔존함으로써 거주지를 둘러싼 계층 분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역 간 격차는 전국 단위(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별 차이)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차이(서울 지역 내의 강남, 강북 지역의 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시와 농촌 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

2.3. 지역 교육격차와 e-Learning

지역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물에서 e-Learning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7], [14], [18]. 또한 성인 학습의 경우 자기주도성, 생활 중심성, 풍부한 경험의 활용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체제로서 e-Learning이 부각될 수 있다[13]. 보다 구체적으로, e-Learning이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이 지역 교육격차의 문제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Learning은 물리적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0], [21]. 지역 교육격차의 핵심은 물리적인 지역 구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e-Learning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학습자 집단이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성인교육)의 측면에서는 아직 학교 교육만큼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e-Learning의 이러한 특성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4].

둘째, e-Learning은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보하고 있어 장소를 불문하고 공유가능성을 높인다[19]. 따라서 e-Learning의 개발, 운영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컴퓨터 네트워크의 접근만 가능하다면 다양한 e-Learning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공유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와 교류는 지역에 따라 편중되

어 있는 우수 학습자원, 우수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편재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e-Learning은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잘 부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삼고 있는 성인 및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교육격차 부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성인은 자기주도성을 가지며 지금까지의 학습 및 생활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상호 교류하며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자기주도성과 상호작용성은 e-Learning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활동으로 보다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학습 과정(process)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넷째, e-Learning은 체계적인 설계, 개발, 질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 운영 관련 인력이나 교수 1인의 능력에 의해 교수 학습 과정의 질이 좌우되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공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기회를 동일하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없애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성이다. 또한 e-Learning 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일괄적인 대량 교육에 비해 맞춤화와 개별화 수준을 높일 수 있어 교수 학습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4. 연구 분석틀

이 연구는 e-Learning이라는 학습체제가 가진 특성에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e-Learning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적 틀과 이와 연계된 e-Learning의 특성을 기본적인 분석의 틀로 하여, 지방 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교육격차와 e-Learning에 대한 인식과 현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기회 및 투입, 과정, 결과의 차이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

다. 양적 측면은 교육의 기회에 있어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교육훈련 기관 수, 교육훈련프로그램 수,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여건 등 주로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질적 측면은 제공된 교육의 기회가 실제적인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결과에 있어서도 격차 없이 제공되고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교·강사의 질, 취업률이나 만족도, 소득증대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교육격차를 양적·질적 차이로 구분한다면 e-Learning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분석들에서는 앞서 제시한 e-Learning의 주요 특성을 양적, 질적 교육격차 현상과 연결하였다. 먼저 양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Learning의 시·공간적 유연성과 공유 가능성이 연계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물리적으로 한 곳에서 개발된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의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격차의 질적 측면을 해소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특성으로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 학습, 공동체 학습을 제시하였다. 맞춤형 학습은 e-Learning이 학습자 집단의 선호나 요구에 적합한 학습으로의 설계가 용이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다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 학습은 e-Learning이 교사의 통제 하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의지와 활동을 통해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성인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찾아서 하기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상호학습 및 공동체 학습은 e-Learning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즉, 상호학습을 통한 교류와 공유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자원의 접근을 높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서 인적교류를 통해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풍성해짐을 나타낸다.

셋째,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e-Learning의 특성이 구현되기 위해 관련되어 있는 e-Learning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지방 정부의 e-Learning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1> 연구 분석틀

교육격차	e-Learning		
	구현목표	특성	관련 요소
양적 측면	교육의 효율성 제고	시·공간적 유연성: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학습 가능	-하드웨어 -코스웨어
		공유 가능성: 특정 조직, 장소에서 개발된 이터닝을 여러 조직, 장소에서 활용 가능	-하드웨어 -문화·제도
질적 측면	교육의 효과성 제고	맞춤형·개별화 학습: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습 가능	-코스웨어
		자기주도적·능동적 학습: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찾아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 가능	-코스웨어 -문화·제도
		상호작용, 공동체 학습: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공동의 목표, 문제를 함께 달성,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 실천	-문화·제도 -코스웨어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지역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과 지역별 e-Learning 활용실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법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동 조사에서는 지역 대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센터가 통합 설치·운영되고 있어 총 12개* 인적자원개발센터

*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의 인적자원개발센터: 부산, 인천, 광주·전남, 대전,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제주

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조사지 검토를 위하여 1차로 인적자원개발 및 e-Learning 관련 전문가 15인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수정·보완된 조사지에 대한 2차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차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삭제하였으며, 문장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지역 간, 지역 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교육격차는 교육훈련의 기회(양), 수준(질) 측면의 비교와 아울러 집합교육과 e-Learning의 교육격차를 알아보았다. 둘째, e-Learning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각 지역의 e-Learning 학습 인프라 구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콘텐츠, 전문 인력, 문화·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3.3. 연구 절차

조사지 송부는 3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며 조사지 회수는 5월 초순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지는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센터장 앞으로 보내졌으며, 각 지역 센터의 전체적인 현황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 회송된 조사지를 토대로 2회에 걸친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면담조사의 내용은 조사지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정보 및 의견 청취가 필요한 부분 및 보충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3.4. 결과 분석

조사지 중 계량화된 문항의 경우 전반적인 수준 및 경향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추가적인 면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석상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 중 수도권인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전체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가 12개 사례로 결과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 처리는 의미가 없어 전체적인 실태 및 수준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4. 연구결과

4.1. 지역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인식

4.1.1 교육훈련 기회 측면

교육훈련 기회 측면에서 지역 교육격차(지역 간 및 지역 내)에 대한 인식을 교육훈련 기관 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교육훈련 기관 시설 여건, 교육훈련 비용 지원 기회,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여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교육훈련 기회 측면에서의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격차가 매우 크거나 조금 있다고 응답하였고, 격차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개설 수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응답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10개에 달해 교육훈련 기회 측면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양적으로 많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 기회 측면에서의 지역 내 교육격차에 대한 의견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와 '교육훈련 기관수'로 나타나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2> 참조).

<표 2> 교육훈련 기회 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 (단위 : 지방자치단체 수)

구분	지역간			지역내		
	격차가 매우 크다	격차가 조금 있다	격차가 전혀 없다	격차가 매우 크다	격차가 조금 있다	격차가 전혀 없다
교육훈련 기관 수	7	5	0	7	3	2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7	5	0	5	5	2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빈도)	10	2	0	7	5	0
교육훈련 기관 시설 여건	4	8	0	5	7	0
교육훈련 비용 지원 기회	4	8	0	2	9	1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제공	4	8	0	5	5	2

이밖에도 교육훈련 기회의 격차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내 교육훈련 기회 측면의 격차에 대해서는 관련 기초 자치단체 조직원 및 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4.1.2 교육훈련의 질 측면

교육훈련의 질(우수성) 측면의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를 교·강사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 교육결과의 효과성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간 교육훈련 질 측면의 격차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격차가 매우 크거나, 격차가 조금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강사의 전문성과 자격취득률이나 소득증대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성과 측면에서의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훈련의 질 측면의 지역 내 교육격차에 대한 의견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비해 격차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3> 참조). 이는 교육훈련의 질적 측면에서 지역 내 격차를 지역 간에 비해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밖에 이러한 교육훈련의 질적 측면의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의 질을 좌우하는 우수 교·강사의 확보의 어려움과 이들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의 부족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하였다.

<표 3> 교육훈련의 질(우수성) 측면에서의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 (단위 : 지방자치단체 수)

구분	지역간			지역내		
	격차가 매우 크다	격차가 조금 있다	격차가 전혀 없다	격차가 매우 크다	격차가 조금 있다	격차가 전혀 없다
교·강사의 전문성	7	3	2	4	3	5
교육 프로그램의 질	4	7	1	3	5	4
교육결과의 효과성 (자격 취득률, 취업률, 소득증대 등)	7	5	0	3	6	3

4.1.3 교육형태(집합교육, e-Learning) 측면

교육 형태에 따른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아직 e-Learning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형태(집합교육, e-Learning)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는 집합교육이 e-Learning보다 격차가 더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물리적 거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e-Learning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교육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 교육형태(집합교육, 이러닝)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 인식 정도 (단위 : 지방자치단체 수)

구분	지역간	지역내
집합교육이 이러닝보다 교육격차가 더 크다.	7	6
집합교육과 이러닝의 교육격차가 비슷하다.	2	4
이러닝이 집합교육보다 교육격차가 더 크다.	3	2
합계	12	12

4.2. e-Learning 관련 인식

4.2.1 e-Learning 기반 구축 실태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별로 e-Learning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중요도 인식 정도를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e-Learning 콘텐츠 확보, e-Learning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e-Learning 문화 조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별 구축 수준을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2.9), e-Learning 문화조성(2.0), e-Learning 콘텐츠 확보(1.9), e-Learning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1.5)순으로 나타났다(4.0 만점). 빈도로 볼 때에도 해당 지역의 기반 구축 수준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매우 우수하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표 5> 참조). 이를 통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콘텐츠나 전문 인력 확보, 문화조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e-Learning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은 우수하다는 의견이 없고 모두 미흡하다 이하의 의견을 나타냈다.

e-Learning 활성화 측면에서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하여 조사 영역 모두가 3.2이상으로 나타나 '중요하다'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e-Learning 콘텐츠 확보는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아 e-Learning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Learning 콘텐츠 확보와 e-Learning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은 e-Learning 활성화 측면에서의 중요도와 해당 지역 기반 구축 수준 간 차가 크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이러닝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 및 중요도 인식

구분	귀 지역의 기반 구축 수준					이러닝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도				평균
	매우 우수하다	우수한 편이다	미흡한 편이다	매우 미흡하다	평균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4	3	5	0	2.9	4	7	1	0	3.2
이러닝 콘텐츠 확보	0	3	5	4	1.9	10	2	0	0	3.8
이러닝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0	0	6	6	1.5	5	7	0	0	3.4
이러닝 문화 조성	0	3	6	3	2.0	5	7	0	0	3.4

이처럼 e-Learning 기반 구축이 미흡한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전남, 충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터넷 활용률 및 PC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령 인구 및 농어촌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점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여건이 갖추어졌더라도 e-Learning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도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 인력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용량이 증가하면 트래픽이나 병목현상 등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e-Learning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는 지역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유한 콘텐츠가 거의 없고, 중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내 초중등교육청이 보유한 풍부한 콘텐츠에 비해 평생교육의 경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저히 수준이 떨어지며 지방교육청과의 협조체계도 미흡하여 이들 콘텐츠와의 연계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의 우수한 콘텐츠 공유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민의 교육수요 조사를 통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e-Learning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측면은 e-Learning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마저 부족하여 이종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Learning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미흡과 관련 기관의 관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나마 주민 대상의 정보화 소양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인식이 변화한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지역민도 많고 e-Learning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4.2.2 지역 내 주민 대상 e-Learning 실시 현황

지역 내 주민 대상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e-Learning 활용 현황을 질문한 결과 전체 1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e-Learning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부산과 광주·전남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지역의 국립 및 사립대학의 e-Learning 센터와 연계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다.

e-Learning 활용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자체에서 e-Learning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과 광주·전남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부산인적자원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넷원격훈련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10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온라인 교육(e-Learning)과 오프라인 교육(교실 수업)을 결합한 Blended Learning으로 실시하고자 중장기적 계획 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e-Learning을 활용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그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로 향후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도 시범적으로 e-Learning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자격증 및 정보통신, 기초 외국어 분야 등을 소규모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후, 지속적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이한 점은 취업포털 사이트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e-Learning 과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점차 주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e-Learning 콘텐츠를 주민에게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용과 지역주민용 콘텐츠를 이원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주민에게는 e-Learning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외국어 및 정보통신 기초과정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부 기관의 인프라를 활

용하는 또 다른 예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대학 e-Learning 센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의 국립 또는 사립대학의 우수한 e-Learning 콘텐츠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또는 국가 공무원, 군 기관 등에 서비스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는 폴리텍 대학 등 산학협력이 잘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e-Learning 활용을 처음 시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아직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편이지만, e-Learning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심과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e-Learning을 활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이유 및 장애요인으로는 예산 및 관련 추진 조직의 부재, e-Learning 운영의 전문성 부족, e-Learning에 대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4.2.3 e-Learning을 통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

e-Learning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으로 대부분 e-Learning의 장점 및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우수 콘텐츠의 공유 및 기존 교육방법의 보완적 측면에서의 큰 기대를 나타냈다.

기여도에 있어서는 시·공간적 유연성 확보, 교육내용 및 자원의 공유, 맞춤형·개별화 학습에 대해 4.0만점에 평균 3.0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실현 가능성도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능동적 학습이나 상호작용, 공동체 학습 측면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이러닝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 정도 및 실현 가능성
(단위 : 지방자치단체 수)

e-Learning 특성	기여도					실현 가능성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평균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평균
시·공간적 유연성 확보	7	4	1	0	3.5	7	5	0	0	3.5
교육내용/ 자원의 공유	8	3	1	0	3.5	8	2	2	0	3.5
맞춤형· 개별화 학습	7	2	3	0	3.3	2	8	2	0	3.0
자기주도적· 능동적 학습	6	2	4	0	3.1	2	5	4	1	2.6
상호작용, 공동체 학습	1	3	7	1	2.3	2	5	3	2	2.5

또한, e-Learning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도입,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 평생교육 요구 증가 등의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지역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 주체인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 간(내)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교육격차의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e-Learning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기회라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응답한 자치단체의 수가 더 많게 나타나 앞으로는 교육 격차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양적 기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수준을 높여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훈련 기회의 측면의 세부 항목별 격차 인식을 보면 지역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

설 수에 대해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기관수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큰 격차가 있다고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기관 자체가 적고,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가 적게 되며 확보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은 만큼 다양할 수도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 교육훈련 기회의 격차도 지역 간 격차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교육훈련 기관수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 간과 지역 내를 막론하고 이 항목들은 지역 교육 격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많은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설립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지역에 교육훈련기관이 설립되고 보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육성은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충분히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훈련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후 훈련생 모집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있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e-Learning 공동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의 질적 측면에서는 교·강사의 전문성과 교육훈련 결과의 효과성 측면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12개 가운데 7개에 달했다. 교육의 질이 교·강사의 우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우수한 교·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교육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비단 교육훈련을 위한 교·강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의 인력 구조가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체 단체 차원에서 지방 내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

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성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기획, 개발되지 못한다 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역민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훈련 실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집합교육과 e-Learning을 비교했을 때 집합교육에서 더 큰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Learning이 집합교육에 비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e-Learning이 교육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e-Learning의 주요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과 중요도 인식을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 다른 3개의 영역에 비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대부분의 정보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나 PC 보급 등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하드웨어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리 없이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어렵고 특히 e-Learning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 수준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확보'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축된 하드웨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지역민 자체가 정보화 소양 능력을 높여 확보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전문 인력의 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e-Learning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e-Learning을 위해 어떠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e-Learning에

대한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한 중앙 단위의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Learning 컨설팅과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인력의 신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체단체 담당자들은 e-Learning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재 자체 보유 콘텐츠가 거의 없고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의 콘텐츠는 더욱 부족하며 기관 간 공유 체제나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문제로 들고 있다. 콘텐츠의 확보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지방 고유의 특화된 내용에 한해 지역 대학이나 지역의 e-Learning 센터 등과 연계하여 공동 개발, 활용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중앙 정부 단위의 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통해 지역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직업교육도 지역에 상관없이 손쉽게 공동 활용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e-Learning 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다 이상의 응답을 했으나 현재 기반이 구축된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의 관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e-Learning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 인력, 그리고 지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 도서관 등 기존의 교육 거점을 이용한 e-Learning 콘텐츠 보급 및 홍보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력들은 e-Learning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수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Learning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특히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고 교육 내용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체로 교육격차의 양적 측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며 특히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맞춤형 학습이나, 상호작용, 공동체 학습, 능동적 학습 등 e-Learning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e-Learning이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와 효과적인 교수전략의 활용,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영혜,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2] 고행일,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3] 고행일, 이해영, 김지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교육인적자원부,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업무보고, 2006.
 [5] 권두승, 성인학습 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서울, 2000.
 [6] 김경근, 김민호, 손준중, 이두휴,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2005.
 [7] 김두정, 신동욱, 학교 교육의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의 정보 통신 기술, 교육과정연구, 17권, 2호, pp. 313-337, 1999.
 [8] 노동부, 평생직업능력개발 5개년 계획(안), 0711. 내부검토자료, 2006a.
 [9] 노동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2006b.
 [10] 류방란, 김성식, 교육격차와 학교교육 기능, 한국교육개발원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2006.
 [11] 오성배, 도시와 시골 지역사이의 학업성취도 격차연구: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자료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 오영훈, 김미숙, 김진영,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13]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박덕훈, 노동부 e-Learning 정책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14] 이준, 이경순,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e-Learning 적용 방안 연구: 교육격차해소,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연구, 7권, 5호, pp. 71-82, 2004.
 [15] 이해영, 교육낙후지역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5.
 [16] Anderson, E.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6, pp. 287-337, 1999.
 [17] Brown, A. Equality of Opportunity for Education: One-off or Lifelong?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40, No. 1, pp. 63-84, 2006.
 [18] Foster, P. R. Gomm, M. Hammersley, Constructing Educational Inequality, The Falmer Press, London, 1996.
 [19] Kearsley, G. Online education : Learning and teaching in cyberspace: Wadsworth, 2000.
 [20] Paradise, A. Informal Learning: Overlooked or Overhyped? Learning Circuit, http://www.learningcircuits.org/0708_paradise.htm, 2008.
 [21] Rosenberg, M. J. Beyond E-Learning: Approaches and technologies to enhance organizational knowledge, learning and performance, Pfeiff, 2006.

조 재 정



198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2008년~현재: 송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2005년~2010년: 노동부 재정기획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등 역임

2010년~현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관심분야 : e-learning, IT산업 HRM 등

이 수 경



1994년: (미)Virginia Tech, M.A.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6년: (미)Virginia Tech, Ph.D.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structional Technology)

1997년: 서울대학교 부속연구소 특별연구원
 1997년~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e-Learning, 기업 HRD, 교수-학습방법, 성인학습